

스마트관광 전문연구기관



STRC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 보도자료

기관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	이메일	nhchung@khu.ac.kr
문의	정남호 소장	연락처	02-961-2353
배포일	2023년 9월 5일	매수	총 5쪽

제주도, 스마트관광도시(광역지자체 부문) 3년 연속 1위

경희대-컨슈머인사이트, '스마트관광 성숙도' 우수 지자체 선정

광역시 기초지자체 부문 '서울 송파구' 작년 이어 1위 수성

광역시도 기초지자체는 '경북 경주시'가 순천시 제치고 단독 1위

○ '전국 지자체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평가'에서 제주도가 광역지자체 부문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기초지자체 부문은 서울 송파구가 2년 연속 1위를 지켰고, 광역도 기초지자체 부문은 경북 경주시가 처음으로 단독 1위에 올랐다.

○ 경희대 스마트관광연구소와 여행.여가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지수(ST-CMI ; Smart Tourism Cities Maturity Index)' 평가 결과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각 지자체 여행자와 현지인(연고자 포함) 총 5만1000여 명에게 각 지역을 5개 영역(△매력성 △지속가능성 △디지털화 △협력적 파트너십 △접근가능성)에서 평가토록 하고 이를 종합해 ST-CMI를 산출했다. ST-CMI는 지자체의 관광 자원과 스마트도시 인프라 중 한 측면에 편중되지 않고 동시에 고려하는 평가지표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 광역지자체 부문 : 서울특별시, 작년 공동 7위→2위 급상승

○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 가운데 △제주가 628점(100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그림1]. △서울특별시(618점)가 작년보다 15점, 5계단 꺾충 뛰며 단숨에 2위에 올랐고,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가 615점 동률로 공동 3위가 됐다. 이어 △대전광역시(609점) △전라남도(606점) △강원특별자치도(605점) △전라북도(602점)가 전국 평균(599점) 이상을 획득했다.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 기획
2023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지수
 - 광역지자체 부문 -

순위	광역 명	점수(1,000점 만점)	작년대비	
			점수	순위
1	제주특별자치도	628	-	-
2	서울특별시	618	+15	▲5
3	부산광역시	615	+6	-
-	광주광역시	615	+9	▲2
5	대전광역시	609	+23	▲6
6	전라남도	606	-	▽2
7	강원특별자치도	605	-	▽1
8	전라북도	602	-9	▽6
전국 평균		599	+4	
9	울산광역시	598	-5	▽2
10	대구광역시	597	-6	▽3
11	경상남도	596	+8	▽1
12	인천광역시	592	+8	-
-	경기도	592	+7	-
14	경상북도	588	+7	-
15	충청남도	581	-	▽1
16	충청북도	570	-1	-

Q. '000'은/는 각 측면에서 어땠습니까?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 ↔ (5) 매우 그렇다)
 주1) 성숙도 평가 점수는 전국 여행자와 현지인(연고자)를 대상으로 5개 차원 (매력성, 접근성, 디지털 준비도, 지속 가능성, 협력적 파트너십)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임
 주2) 사례수는 여행자 24,671명, 현지인(연고자) 26,493명임
 주3)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함

□ 제주는 2위 서울보다 10점 높은 점수로 발군의 1위를 지켰지만 그 차이(‘22년 18점)는 크게 줄었다. 다른 지자체 점수가 크게 상승한 데 비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스마트관광 도시로서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서울은 '21년 9위에서 '22년 공동 7위로 2계단, 올해는 2위로 5계단 약진했다. 광역시 기초지자체 부문 톱10에 송파(1위)·강남·종로구(공동 2위) 등 무려 6개 구가 오른 데 힘입었다. 대전은 작년보다 무려 23점, 6계단 상승하며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크게 도약했다.

□ 호남지역 3개 광역지자체(광주, 전남, 전북)는 지난해 모두 톱5에 들었지만 올해는 광주를 제외하고는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작년 2위 전북은 9점 하락하며 6계단 내려간 8위에 그쳤다.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 · 컨슈머인사이트 공동 기획
2023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지수
 - 광역시기초지자체 부문 -

순위	광역-기초 자치단체 명	점수(1,000점 만점)
1	서울 송파구	697
2	서울 종로구	681
-	서울 강남구	681
4	부산 해운대구	679
5	인천 연수구	662
6	서울 서초구	661
7	서울 중구	659
8	서울 성동구	653
-	부산 수영구	653
10	부산 남구	641
11	인천 동구	640
12	부산 영도구	636
13	대구 중구	635
14	서울 용산구	633
15	부산 부산진구	632
-	서울 마포구	632
17	부산 기장군	631
18	대구 수성구	630
19	서울 광진구	629
20	대전 서구	628
21	광주 서구	627
22	대구 동구	624
23	부산 동구	623
24	부산 중구	621
25	서울 영등포구	620
26	서울 동대문구	619
-	서울 서대문구	619
28	울산 남구	618
-	서울 양천구	618
30	광주 동구	617

Q. '000'은/는 각 측면에서 어땠습니까?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 → (5) 매우 그렇다)
 주1) 성숙도 평가 점수는 전국 여행자와 현지인(연고자)를 대상으로 5개 차원 (매력성, 접근성, 디지털 준비도, 지속 가능성, 협력적 파트너십)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임
 주2) 사례수는 여행자 24,671명, 현지인(연고자) 26,493명임
 주3)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함

■ 광역시-기초지자체 부문 : 톱30에 서울 자치구가 13곳 차지

- 기초지자체는 광역시와 광역도별 특성을 감안해 광역시 기초지자체(75개 구·군)와 광역도 기초지자체(154개 시·군) 부문으로 나눠 비교했다.
- 광역시-기초지자체 중에는 △서울 송파구(697점)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서울 종로구(681점)와 △서울 강남구(681점)가 동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4위는 부산

해운대구(679점)였으며, 5~7위는 △인천 연수구(662점) △서울 서초구(661점) △서울 중구(659점) 순으로 1~2점 차이에서 순위가 같았다.

○ 서울과 부산 지역 쏠림현상은 더 심해졌다. 30위권에 서울이 13곳(작년 10곳), 부산이 8곳(작년 8곳)으로 작년보다 늘어나면서 이들 두 지역이 3분의 2를 넘었다. 그 밖에는 대구가 3곳, 광주·인천이 각 2곳, 대전·울산이 각 1곳이었다.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 · 컨슈머인사이트 공동 기획
2023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지수
 - 광역도 기초지자체 부문 -

순위	광역-기초 자치단체명	점수(1,000점 만점)
1	경북 경주시	688
2	전남 순천시	670
3	전북 전주시	658
4	전남 여주시	654
5	경기 과천시	648
6	전남 담양군	647
7	강원 강릉시	646
8	경기 수원시	642
-	전남 구례군	642
10	제주 서귀포시	639
11	경기 하남시	634
-	경북 문경시	634
-	경남 하동군	634
14	강원 춘천시	633
-	경남 남해군	633
16	충남 공주시	632
-	충남 부여군	632
-	경남 진주시	632
19	경기 고양시	631
-	전남 보성군	631
21	강원 삼척시	630
-	강원 속초시	630
-	전북 고창군	630
24	경기 용인시	626
-	전남 목포시	626
-	경북 안동시	626
27	경기 의왕시	625
-	경남 통영시	625
29	전북 순창군	624
30	강원 영월군	623
-	전북 남원시	623

Q. '000'은/는 각 측면에서 어땠습니까?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 → (5) 매우 그렇다)
 주1) 성숙도 평가 점수는 전국 여행자와 현지인(연고자)을 대상으로 5개 차원 (매력성, 접근성, 디지털 준비도, 지속 가능성, 협력적 파트너십)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임
 주2) 사례수는 여행자 24,671명, 현지인(연고자) 26,493명임
 주3)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함

■ 광역도-기초지자체 부문 : 전남·경기, 톱30에 각각 6곳 포함

○ 광역도-기초지자체 중에는 △경북 경주시(688점)가 작년 공동1위였던 △전남 순천시(670점)를 큰 점수 차이로 따돌리며 단독1위로 올라섰다. 그 뒤로 △전북 전주시(658점) △전남 여수시(654점) △경기 과천시(648점) △전남 담양군(647점) △강원 강릉시(646점) 순이었다. 이들 1~7위 지자체는 모두 작년에 이어 톱10 자리를 지켰다., 경기 수원시(642점), 전남 구례군(642점), 제주 서귀포시(639점) 3곳은 톱10에 신규 진입했다.

○ 상위 30위 중 전남과 경기 지역이 각각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5곳, 전북과 경남이 각각 4곳이었다. 이어 경북 3곳, 충남 2곳, 제주는 1곳이었다.

■ 특징 분석 : 대전광역시 단기간 약진은 벤치마킹 사례

○ 광역지자체 부문 전국 평균점수는 해마다 상승 추세다. 재작년 590점, 작년 595점에서 올해는 599점으로 올랐다. 16개 광역지자체 중 9곳의 점수가 오른 데 비해 하락은 4곳에 그쳤다. 국내 지자체의 스마트관광도시 역량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셈이다.

○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자체는 대전광역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점수를 합산해 산출하는 특성 상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타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올해 발군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 배경에는 지역 내 5개 자치구의 약진이 있다. 대전 지역 5개 자치구는 5개 측정 항목에서 하나의 예외 없이 작년보다 점수가 향상됐다.

○ 정남호 경희대 스마트관광연구소장은 “대전은 전통적인 여행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어도 지자체와 지역민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에 스마트 관광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본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의 ‘2023년 지자체별 관광/여가산업 역량 평가 조사’를 기초로 했다. 컨슈머인사이트의 82만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표본들로 여행객 2만4671명, 현지인(연고자) 2만 6493명 총 5만1164명을 조사했으며, 지자체별로 비교 가능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해 여행객과 현지인을 비비례 할당해 가급적 기초지자체 당 표본이 60사례를 넘도록 설계했다. 자료는 이메일과 모바일을 사용해 2023년 5월 2일~5월 15일까지(총 14일) 수집했다.